

김 과잉 생산에 가격 ‘뚝’… 불법 양식에 칼 빼든 전남도

김 산업 호황을 틈 탄 불법 양식이 늘면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전남도가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산 전남의 김 누적 생산량은 지난 9일 현재 48만 9585t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8만5081t)보다 10만4504t, 비율로는 27%나 증가했다.

과잉 생산으로 위판가격은 kg당 156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kg당 1937원)보다 20% 가량 하락하는 등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다.

과잉 생산은 K푸드 열풍을 타고 신규 양식장 면허가 확대된 이유도 있지만 불법시설이 증가한 점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김 불법 양식 시설 적발 건수는 2023년 42건, 2024년 41건에 달했고, 올해 4월까지 39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주산지인 완도·진도·고흥에서만 최근 3년새 44건, 29건, 23건이 적발됐다. 3곳 합쳐 96건으로, 도내 전체 적발건수(122건)의 79%에 이른다.

마른 김 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원료인 물김은 전남에서만 1200t 이상이 바다에 버려지는 등 생산 과잉에 따라 전국적으로 폐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남 김 생산량 27% 증가… 가격은 20% 떨어져 불법 양식시설 급증… 현장 위주 계도·단속 강화

결국 행정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전남 2026년산 김 불법 양식 시설 사전 차단 킷오프 회의를 열고 시·군별 불법 김 양식장 정비계획과 단속방향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도와 12개 시·군 어장 정비와 지도·단속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해 초기 불법 양식시설 근절 방안 등

어장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생산 시·군의 우심 해역을 중심으로 어업인 간담회를 추진하고 본격적으로 김 양식장 닻 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7월 말부터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위주 고강도 계도·단속활동을 통해 불법 김 양식시설을 원천 차단할 계획

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김산업을의 지속 가능성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군별 실효성 있는 김 양식장 정비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현장 계도·단속 활동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민주당·해남2)은 “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준법 어업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전남도, 병상수급 행정예고…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 해소”

6개 중진료권 나눠 ‘공급 제한·조정·가능’ 구분

전남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병상자원 배지로 지역의료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3기(2023-2027년)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2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병상 수급 관리계획은 병상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병상 수급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병상 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됐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등 6개 진료권별로 분류하고 최근 5년간 병상공급량, 인구 추계, 자원 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기초로 2027년까지 지역별·병상 유형별 공급·수요량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6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병상수점진적 축소) ▲공급 조정(병상 공급 제한하되 기능 전환 등 통해 적정화 도모) ▲공급 가능(수요량 최소 범위에서 공급) 지역으로 구분하고 병상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과 변경 허가 절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임을 감안, 취약지·필수 의료와 공공의료의 병상 증설은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향후 국립 의과대학 병원이 설립되면 개설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도 반영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남지역 병상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의료비 증가 등 지역 의료 체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유령 법인으로 상품권 거래 가장…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일당 검거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조직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2대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총괄 수거책 A(56)씨를 사기·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 송

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일당 11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검거 과정에서 현금 1억3000만원과 범죄에 사용된 체크카드·통장 45장도 압수했다.

이들은 하부 조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해 수표 발행을 수차례 반복, 유령 법인을 통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품권 거래로 가장된 금액이 25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남지역에서 발

생한 다액 보이스피싱 사건을 접수해 수거책들을 추적, 경기도 일대에서 순차적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주저 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360도 채움프로젝트’ 추진

안전시설물·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가구당 최대 350만원 15가구 지원

광주지역 중증장애인의 주거·이동·건강권 강화를 위한 ‘360도 채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광주시는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을 활용해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원하는 등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360도 채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5600만원을 투입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가정에 완충매트, 방충망, 유리강화필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세이프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구당 최대 350만원까지 총 1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복지기금 1600만원을 활용해 ‘와상 근육장애인 구급차 이용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사실 구급차 이용료를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새빛콜 차량 이용이 어려운 와상 근육장애인의 병원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검진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된다. 광주시는 광산구 우리동네의원에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동행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360도 채움 프로젝트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입에서 입으로 술 전달”… 막 나간 조선대 신입생 MT

조선대학교 신입생 MT(단합대회)에서 학생 간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학생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한 학과 MT 도중 음주를 즐기던 학생들이 러브샷을 강요하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신입생에게도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기는 ‘5단계 러브샷’을 시켰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목격담을 올린 학생은 게임 중 성행위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과 욕설이 공공연히 오갔으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MT에 참여한 학생들의 익명 제보는 잇따랐다. 또 다른 학생은 “이성 선배가 허벅지를 만져 울고 싶었다”, “분명 성희롱 금지라고 공지됐는데 너무 놀라서 아직도

안 잊는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학과 학생회는 에브리타임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학생회는 “러브샷의 경우 기존에 친분이 있던 동성 간 자발적 참여로 파악되나, 이에 불편함을 느끼셨을 학우분도 계셨으리라 생각된다”며 “부적절한 단어 사용도 확인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더욱 철저한 교육과 예방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MT에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측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수, 피해 학생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직접 신고는 없었지만, 학교 측이 사건을 인지했음에 따라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말다툼 도중 지인 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만취 상태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20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손가락을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연인과 연인이 부른 지인 등 4명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박석우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통일화물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동일화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